[ 12월 10일 밤 ]

“와아! 이걸로 드디어 이번 주도 끝!!”

채아람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다.

밤에도 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런지 나도 이번 주는 유난히 길었던 느낌이다.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모두 고생하셨어요! 어우, 빨리 집에 가서 밀린 일 좀 끝내야지!”

“아람아. 그 전에 이번 주에 정해둔 목표부터 확인해야지.”

“아, 맞다. 뭐였죠?”

도 “세 명은 조각을 모아오는 거였고. 선생님은 평소처럼 응원하는 거였지!”

한 “그리고 너는 열쇠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때? 성공했어?”

[ 퀘스트 아이템 체크 ]

=> 실패

“...죄송해요. 못 만들었어요….”

나는 참담한 마음으로 실패를 고백했다. 조금 더 열심히 할걸. 그렇게 생각해도 바뀌는 건 없었다.

결국 나는 열쇠를 만들지 못했다.

“...후배. 자책할 필요 없어. 누구나 실패는 하는 법이야.”

한 “맞아. 너 없었으면 병원에 들어갈 생각도 못 했을 텐데.”

도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렴.”

다들 위로를 해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다.

고 “으흠. 이번 주는 그러면 이걸로 끝이야. 다들 고생 많았어.”

채 “진짜 끝! 집에 가도 돼요?”

고 “후후. 그럼 돌아가죠.”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학생회 멤버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온다.

열심히 조각을 모아줬는데도 이것 하나 못했구나. 한심하기 그지없네.

어떻게든 해냈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는 없을까.

아.

문을 열지 못해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나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고 핸드폰에 폐병원을 검색했다.

...

“안에는 생각보다 뭐가 많네.”

파이프를 타고 올라와 들어온 폐병원 2층.

병원 안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아무렇게 놓인 침대와 환자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난잡하게 굴러다닌다.

이러면 내 생각대로 열쇠를 찾을 수 있겠는걸.

아마 원장실에 열쇠가 있겠지. 계단 근처에 달린 병원 내부지도를 확인했다.

원장실은 4층이구나. 재빨리 올라갔다 열쇠만 챙겨서 빠져나오자.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운이 좋게 미지와 마주치지 않고 4층까지 무사히 올라왔다. 원장실 앞에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은 순간.

<<뭔가 두드리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딱딱한 벽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다.

뭐지.

살짝 문을 열어 안을 엿봤다.

“......”

누군가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빼빼 마른 노인이었다. 너무 마른 나머지 척추뼈가 살가죽을 뚫은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노인은 몸을 힘껏 뒤로 젖히고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퍼억.

사람이라면 피가 흘렀을 만한 짓이지만 노인은 멀쩡했다.

노인은 계속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퍼억. 퍼억.

점점 더 세게.

그렇게 몇 번이나 벽과 싸우듯 머리를 박고는

<<괴성>>

노인이 괴성을 질렀다.

나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났다.

저건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마치 괴물 같은.

그래. 미지와도 같은.

내 잡생각은 거기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

퀭하게 파여 볼살조차 남지 않은 노인이 벽에 딱 붙어 나를 쳐다본다.

<<벌컥>>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내게 달려들었다.

====

배드 엔딩 1.

[......글월고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12월 13일 A군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수사를 통해 숨진 A군을 폐건물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CCTV 조회 결과, A군은 홀로 폐건물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신체에도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같은 반 친구들에 따르면 A군은 학급에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놀았다고 한다.

글월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A군의 극단적 선택은 집단 따돌림이 원인으로 보이며......]